

<인터뷰>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신임 회장

"실정 맞는 교과서 개발과 교사 전문성 강화 주력"

(인천=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국학교의 현지 실정에 맞는 교과서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말 한국학교는 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인 만큼 한국 정부도 지원을 늘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1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열린 재외동포재단 초청 '2014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석한 최미영(55·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NAKS) 신임 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말 한국학교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있는 다송한국학교 교장인 최 씨는 지난 7월 5일 NAKS 총회에서 임기 2년의 17대 회장에 당선됐다. 2년 임기는 오는 9월 1일 시작된다.

그는 한국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인 차세대가 거주국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꼽았다.

"많은 분이 주말 한국학교는 한국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은 동포 차세대가 정체성을 확립해 거주국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어 외에도 한국역사, 문화, 현재의 이슈 등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천여 개 한글학교와 3만여 명의 학생이 소속된 NAKS의 교사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다. 최 회장은 "이들은 내 자녀를 잘 길러보자는 마음에서 교사를 시작해 다른 자녀까지 봉사 대상을 넓혀간 것"이라며 "금지과 보람을 교육에서 찾기에 힘든 줄 모른다"고 담담히 말했다.

최 회장은 "주말 한국학교는 대부분 교회나 학교 건물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교사의 열정과 희생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며 "더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초청연수나 현지 강사 파견 등 지원을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NAKS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금지를 심어주기 위해 2년 전부터 120시간 통신 교육을 이수하면 한국 정부 공인 3급 교원 자격시험을 볼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많은 교사가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몇 안 된다.

최 회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통신 교육은 마쳤지만 시험을 보려고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한국문화원과 NAKS가 협력해서 현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원 자격이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교사로서 자부심과 금지를 높이려고 취득하려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학교에서 동포 청소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줄어드는 것은 한국 배우기와 실생활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통일 같은 현안

에 관해 배우고 토론하는 포럼의 장도 만들어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돕는 데 더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최 회장은 대신중학교 등에서 3년 반가량 교편을 잡은 뒤 1986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학교 교사로 21년째 봉사하는 그는 2006년 NAKS 산하 북가주협의회 회장, 2010년 NAKS 부회장을 역임했고 5년째 북가주협의회 역사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wakaru@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7-14 16:30 송고]